

보도일시 (인터넷) 2024. 9. 10.(화) 11:00, (지면) 2024. 9. 11.(수) 조간 배포 2024. 9. 10.(화) 06:00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출범

- 재해 피해 대응, 수급·물가안정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 목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는 수산정책실장을 팀장으로 수산정책실 내 관계부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수산물자원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TF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자원변동 현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어종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개편, 기후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510)
	어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희근 (044-200-5511)